

## 생수의 강:

루가복음은 마르코나 마태오복음보다 한 단계 더 성숙한, 그래서 선교에 나설 수 있는 공동체의 수준을 드러냅니다. 마르코나 마태오의 내적시선이 주님을 “향하여” 있다면 루가의 시선은 주님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마르코복음의 여정을 통해 “예수는 주님이시다”는 신비를 깨달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룹니다. 그리고 마태오의 여정을 통해 다섯 개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 어떤 성공과 실패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임마누엘)을 경험함으로써 탄탄한 제자공동체를 이룹니다. 마르코는 주님을 향해 “당신은 누구십니까?” 묻는 구도자의 복음이라면 마태오는 그 주님을 깨달은 사람들끼리 모여 “우리는 누구입니까?” 물으면서 가르침과 경험을 통해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복음입니다. 루가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물으며 세상을 향해 파송을 받는 사도의 복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송 받은 자로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처럼 일하고 활동하길 원합니다. 당연히 ‘주님은 도대체 어떤 힘으로 그런 능력과 활동이 가능하셨을까?’ 관심을 갖게 되고 거기서 ‘아, 성령이 이분을 통해 일하셨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하는 깨달음을 드러내는 것이 루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루가는 예수님의 잉태, 성장, 세례, 유희, 모든 활동과 이적, 마침내 수난과 부활까지 죄다 성령의 활동이었음을 깨닫고 이를 드러냅니다. 성모 마리아를 통한 예수 탄생의 신비(1장)도, 그분이 자기 소명을 밝히는 장면(4장 “성령이 나에게 내리시어 가난한 자들에게”)에서도 부각되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질문은 이러합니다. 성령이 일하셔야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진대 “성령이 나를 통해 활동하실 수 있게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다시 시선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지?’ 하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거기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무엇보다 기도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루가복음 여기저기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모습을 드러냅니다(3, 6, 9, 11, 22 장 등). 이 기도를 통해 예수님은 깊이 순명하시고 자기를 비우실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이분을 통해 일하실 수 있었다는 것이 루가복음의 핵심증언인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심으로써 성령이 일하실 수 있었던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용서하시는 분으로 나타납니다. 용서받은 죄 많은 여자(7장), 잃어버린 아들(15장), 세리 자캐오(19장) 이야기가 다 용서의 주제를 말하거나와 무엇보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무지합니다” 하고 기도하십니다(23장). 기도와 용서가 성령이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조건이기도 하지만 거꾸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징표가 기도와 용서의 모습이이기도 하다는 메시지를 우리는 루가복음을 통해 듣습니다.

분당교회의 이 시점에서 저는 루가복음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라는 메시지가 마음에 와 닿습니다. 사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기적적인 풍어현상이 결부되는 것은 루가와 요한뿐입니다. 분당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의 소명은 무엇인지요?” 하고 주님께 묻습니다. “깊은 데”란 우리 현 상황의 깊은 곳을 의미할 것입니다. 깊이 들여다보고 깊이 들으려는 마음의 태도가 필요한 것이지요. 저는 외적으로 그 “깊은 데”란 소모임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서로의 깊은 속사정과 갈망을 듣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의 패배감을 보상받고도 남을 가득 찬 그물은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이주엽 신부)

함께 모인 공동체를 위한 예배 공간

공간은 공동체가 만든다.

공간 설계의 과정은 어떤 특정한 교회가 공동체 신학을 건물에 구현하려고 때 시작된다. 그 교회는 특정한 장소에 있는 세례받은 이들의 공동체로서 이 공간 설계에 열쇠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중심을 무시하거나, 타협하거나 훼손시키는 공간 계획이란 있을 수 없다. 공간 계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서로 연결시키고, 그들이 드리는 전례의 중심 초점들과 연결시키며, 그들 신앙의 신비를 연결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 자체, 그리고 이러한 전례의 초점들로부터주의를 분산시키는 그 어떤 것들도 문제 삼아야 한다. 성공회 예배에서 전례의 중심 초점들은 다음과 같다: 함께 모인 공동체, 세례대, 설교대, 그리고 제대. 건물들은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 있는 곳 너머를 보도록 한다. 좋은 전례적 공간은 우리가 더욱 경청하도록 하고, 좀더 잘 보도록 하고, 더욱 깊이 참여하도록 한다. 그러므로 청각적 요소와 조명은 공간 계획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들이다.

좋은 예배 공간은 그 배치 비율과 비례를 통하여 공동체를 묶어 준다. 넓이와 길이가 대체로 비슷한 하나의 공간이 이를 위해 가장 적합하다. 세례받은 이들을 위한 공간과 성직자들의 공간을 나누는 예배 공간은 적절하지 않다. 예배 공간의 모든 것들에 대한 조율은 하나님의 백성이 전례의 중심 초점들을 둘러싼 움직임을 쉽게 하도록 한다. 계획의 정직성, 용구들의 통일성, 공예의 세심함, 그리고 기능의 충실함이 그건물 자체와 그 안에 있는 물건들의 성격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공간은 복음화의 도구이다.

예배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부의 시각에서 예배 공간을 보는 면이 있다. 한편, 방문자 혹은 처음오는 사람에게 외부의 시각에서 예배 공간을 보는 면이 있다. 예배 공간이 우리가 돕고자 하는 이런 방문자와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도 다가가야 한다면, 그 교회에는 분명하게 초대를 드러내고 접근하기 쉬운 입구와 열려있고 환대하는 모임을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우리 교회 건물은 열림과 보살핌과 이해와 신비의 메시지를 전달해야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교회 공간에 들어가고 싶어하며, 거기에 들어갔을 때 어떤 생동감과 생명을 발견하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들을 예배와 교육과 친교와 봉사의 삶으로 환영해야 한다.

공간은 지속적으로 쇄신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례 공간 계획의 원칙들은 기존 공간을 개조하거나 재구성하는 데서도 똑같이 중요하다. 대부분의 오래된 교회 건물들은 신학과 전례의 변화를 반영하여 자주 리모델링되었다. 이러한 원칙들과 공간의 구조들 간의 세심한 대화가 그 기능과 설계의 조화를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 결과는 예배 공동체를 위해 - 반대하는 것이 아닌 - 작동하는 것이다. 우리가 가진 오래된 예배 공간들을 재구성하려는 도전을 무시해서는 안된다.

공동 기도를 위한 교회 예배 공간에 관한 미국 성공회 선언(1994년 4월 1일) 중에서  
(번역: 주낙현 신부)  
배경: 일본 오사카/ 빛의 교회 (건축가: 안도 다다오)

2010년 5월 9일 부활6주일

서로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새벽을 흔들어 깨우리라” (시편 108:2)



헌신하고, 친교하고, 환대하는 공동체

“우리는 사랑가운데 진리대로 살면서 여러면에서 자라나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야합니다 ” (에페4:15)

교구장 : 김근상 (바오로)주교  
관할사제 : 이주엽 (프란시스)신부  
신자회장 : 이창천(베드로), 사제회장 : 유현중(애덕)

(우) 463-80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60-3(101호)  
교회전화 : (031)716-6679 휴대폰 : 010-2557-9375

[Http://www.skhbundang.or.kr](http://www.skhbundang.or.kr)

# 부활 6주일 감사성찬례

집전 : 이주엽 신부 / 설교 : 이주엽 신부  
 MC : 여테오도로, 김마틴 / 선창 : 윤 요한, 조 프란시스 / 오르간 : 김 나오미

## ✦ 개회예식

입당성가 ..... (367장) ..... 다같이  
 개회기도 ..... 집전자  
 영광송 ..... (B곡, 75쪽) ..... 다같이

## ✦ 말씀의 전례

본기도 ..... 집전자

사랑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약속하셨나이다. 비옵나니, 우리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주님의 말씀과 사랑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과 불안을 떨쳐 버리게 하소서.

제1독서 ..... (사도 16:9-15) ..... 송인석 (앵니다)  
 시편 ..... (67편) ..... 다같이



- 하느님, 우리를 어여뻐 보시고 / 축복을 내리소서 || 웃는 얼굴을 / 우리에게 / 보여주소서
- 세상이 / 당신의 길을 / 알게 / 하시고 || 만방이 / 당신의 구원을 / 깨닫게 / 하소서
- 하느님, 백성들이 당신을 / 찬양 / 하게 / 하소서 || 만백성이 / 당신을 / 찬양하게 / 하소서
- 당신께서 열방을 공평하게 다스리시고 : 온 세상 백성들을 / 인 / 도 / 하심을 || 만백성이 / 기뻐 노래하며 / 기리게 / 하소서
- 땅에서 오곡백과 / 거두었으니 || 하느님, 우리 하느님께서 / 내리 / 신 / 축복 / 이라

- 하느님, 우리에게 / 복을 / 내리 / 소서 || 온 세상 땅 끝까지, 당신을 / 두려워 / 하소서
-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 처음과 같이 / 지금 / 도
- 그 / 리 / 고 || 영 / 원 / 히 / 아 / 멘

제2독서 ..... (묵시 21:22-22:5) ..... 문종철 (그레고리)  
 총계성가 ..... (436장) ..... 다같이  
 복음성경 ..... (요한 14:23-29) ..... 집전자  
 설교 ..... 이주엽 신부  
 니케아신경 ..... (10쪽) ..... 다같이  
 교회와 세상을 위한 기도 ..... 여성호 (테오도로)

## ✦ 성찬의 전례

평화의 인사 ..... 다같이  
 봉헌성가 ..... (193장) ..... 다같이  
 성찬기도 ..... (16쪽 / B곡) ..... 집전자  
 영성체성가 ..... (211장) ..... 다같이  
 영성체후 기도 ..... (33쪽) ..... 집전자

## ✦ 파송예식

교회소식 ..... 신자회장  
 축복기도 ..... 집전자  
 파송성가 ..... (518장) ..... 다같이

## 다음 주(5월16일 부활7주일) 성서정과 및 봉사자

제1독서 : 사도 16:16-34 (김선재 모니카), 제2독서 : 묵시 22:12-14, 16-17, 20-21 (이경원 앵니스), 시편 : 97편, 복음 : 요한 17:20-26, 신자의 기도 : 송준영(그레고리)  
 봉헌 : 배숙원(앵니스), 애찬봉사 : 김은경(가브리엘라), 문희숙(모니카)

## 분당교회 공동체 소식

1. 지난 금요일(5월 7일) 지하층 임대 계약을 완료했습니다. 이 과정에 수고하신 신자 회장님, 아버지회장님께 감사드리고 여러 좋은 조건으로 임대를 허용해주신 건물주 최 희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2. 대략 7월 4일 주일까지 위 아래층의 정비를 마감하고 축복식을 갖는 걸로 목표를 정해 봤습니다. 다음 주쯤 조 프란시스님께서 예배공간에 대한 구상안을 두었 제시하면 그걸 놓고 모두의 마음에 합하는 안이 무엇인지 결정짓도록 하겠습니다.
3. 오늘 나눠드린 설문지는 공간이 마련되면서 분당교회의 소명과 앞날을 식별하려는 것입니다. 정성껏 작성해주시고 다음 주까지 제출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4. 관할사제의 주간 일정상 심방이 가능한 시간은 월요일(오후 세 시 이후 아무 때나), 수요일(오후 아홉 시 이후), 목요일(오후 일곱 시 이후), 토요일(아무 때나) 등입니다. 참고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십시오. 전체 교우님들에 대한 조직적인 심방 및 냉담자 사목은 공간과 교육 커리큘럼이 확정된 이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 금주부터 금요 영성모임은 1년 여덟 꼭지의 성공회 제자훈련의 첫 꼭지로 4주간 프로그램 "4복음서의 이해"의 첫 시간으로 모입니다. 한 시간 강의 후 생활나눔 갖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6. 성찬례 후 준비상황 점검 및 여름행사를 위해 주일학교 교사 모임 잠깐 갖습니다.
7. 강남 교무구 연합감사성찬례에 참여하시고 수고해주신 교우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지난 주 헌금내역

구분	주일헌금	주일출석 교우들, 주일학교
	십일조	김용호/송인석, 김기화/유봉자, 유성열/김남이, 박기숙, 윤의광/황정자
	감사헌금	김태우, 윤지상, 장윤자, 정수임, 김기화, 무명
	목적헌금	김기화, 유현중, 윤의광(나눔의 집) / 김기화(신학교 기숙사)
더욱 자세한 내역확인인 재무위원이 드립니다.		